



대한간호협회가 치매 방문간호과정 교육을 두 차례 실시했다. 2차 교육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치매전문교육 방문간호과정 교육 마쳐

간협, 복지부 위탁받아 교육 실시

대한간호협회가 '치매전문교육-방문간호과정'을 마쳤다.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에게는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보험 5등급) 대상자 방문간호자격이 부여된다.

대한간호협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위탁 '치매전문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비

를 지원받아 치매전문교육을 운영했으며, 기본과정과 방문간호과정으로 진행됐다. 치매전문교육 방문간호과정은 올해 기본과정(40시간)을 이수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모두 두 차례 실시했다. 1차 교육은 8월 13·20일, 2차 교육은 11월 12·19일 열렸다. 총 235명의 간호

사가 교육을 이수했다. 방문간호과정 교육은 이론(16시간) 및 실습(16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론 강의에서는 △방문간호 서비스 △방문간호 기록 및 평가 △인식재활 프로그램-방문간호를 중심으로 △치매대상자를 위한 환경안전관리 △치매대상자를 위한 보완대체요법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 △치매비약물 요법의 적용사례 등이 다뤄졌다. 실습은 데이케어센터, 재가 방문간호센터, 너싱홈 등에서 실시했다. 김숙현 기자 shkim@koreannurse.or.kr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 열려

숙련된 간호사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 모습.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이 주관했다.

이날 김 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현황과 법제도 개선 과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인력문제 해결의 경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 윤 교수는 "간호인력의 수와 숙련도는 의료의 질, 환자안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환자당 간호사 수가 많으면 환자 사망

률과 의료과오 발생률이 낮아지고, 환자의 입원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가산수가 등을 적용해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력 현황조사를 통해 정책대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호 단장은 "간호사 1명이 환자 20~40명을 보는 상황에서는 환자안전과 질 높은 입원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은 간호사들의 짧은 근속년수와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게 되며,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초 대한간호사 부족 현상을 보면 배출되는 인

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라면서 "간호대학 정원 확대 등 단순한 양적 공급보다는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숙련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 수급은 개별 병원이나 지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정책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joo@

중대한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 개시

일명 신해철법 시행... 병원 동의 없이 시작

앞으로 사망,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의료사고 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됐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이는 11월 30일 이후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각하 등의 이의신청 사유를 명시할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원은 7일 이내 조정절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한 벌금과 과태료는 한층 완화됐다. 조사 거부나 방해 시 3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으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지침 마련

의료관련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지침이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기석)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내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항생제 사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환자발생 초기인지를 위해 의료관련 감염병 관련 내성균검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내 감시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손위생 및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전용 의료용품 사용하며, 주변환경 소독 등 감염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환자 발생 시 환자격리 및 주위환자

적극 검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료관련 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유행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현장역학조사와 함께 감염관리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의료관련 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고 환자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지침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joo@

간호사, 4차 산업혁명시대 주도적 역할해야

연세대 김모임간호학연구소 워크숍

연세대 간호대학 김모임 간호학연구소(학장·이태화, 소장·오유금)는 전국간호학 연구소장 및 학(과)장 워크숍을 '우리나라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간호연구개발 우선순위' 주제로 11월 30일 개최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간호 연구 개발 우선순위 워크숍 모습.

워크숍에서는 김모임간호학연구소가 실시한 정책연구 '국내외 간호 R&D 현황 분석' 결과를 박정옥 연세대 교수가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그룹을 나눠 간호정책, 간호교육, 융복합 및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했다.

선 경 오음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보건의료산업 정책의 동향과 의료인의 역할 기대' 주제

특강에서 "세계는 지금 ICT(정보통신기술)와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었으며, 4차 산업혁명은 보건의료산업이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보건의료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보건의료산업 관련 R&D를 활성화하고, 정책개발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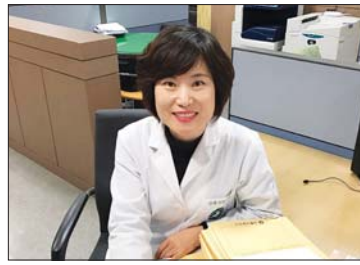
김명옥 방문간호사, 심폐소생술로 주민 생명 구해

강원도 강릉시 주민진보건강증진소 김명옥 방문간호사가 심폐소생술로 주민의 생명을 구했다.

김명옥 간호사는 11월 23일 오전 9시45분경 강릉시 주민진보의 김 모(67·여) 씨의 집을 가정방문 중이었다.

평소 고혈압과 심장질환, 치매를 앓고 있던 김 씨가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호흡이 멎은 상태였고, 맥박도 잡히지 않았다.

김명옥 간호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한 후 김 씨는 강원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옥 간호사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돌보던 환자가 생명이 위급해진 순간에 마침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면서 "은 힘을 다해 환자를 구해아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동강대 대학의장 '나이팅게일홀'로 명명

동강대(총장·김동욱)는 본관 5층 대학의장을 '나이팅게일홀'로 이름을 붙이고, 간호학과 전용교육공간으로 지정했다.

우수한 간호인재 배출을 위해 간호학과 학생들이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나이팅게일홀은 최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앞으로 인성교육, 진로교육, 학습법교육, 의사소통교육 등 다양한 특강과 세미나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혜련 간호학과장은 "나이팅게



일홀에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간호정신을 본받아 자부심과 긍지를 지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아동간호학회 총회... 회원중심 홈페이지 개편

한국아동간호학회(회장·이영은)가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12월 1일 열고 201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학회는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기로 했다. 디자인을 개선하고 온라인 회원가입, 학술행사 등록 기능 등을 추가해 회원의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간호학 학술목표 개정 TFT를 구성하고 개정작업을 진행기로 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아동간호학 문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아동간호 관련 해외학술단체와의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인상연



2016년 한국아동간호학회 총회 및 동계학술대회 모습.

수프로그램, 신입교수 대상 워크숍 등을 계속 개최한다. 아동간호학회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질 관리에 매진기로 했다.

학술대회는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경향 및 아동간호학 학술목표 분석' 주제로 열렸다. 우수논문상, 연구지원상, 우수포스터상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김숙현 기자 shkim@

보건간호학회 총회... 새 회장 심문숙 학장

한국보건간호학회는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12월 2일 열고 새 회장으로 심문숙 건양대 간호대학장(사진)을 선출했다.



학회는 내년 사업계획으로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보건간호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간호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교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대한보건협회와 공동으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보건간호학회지를 연 3회 발간하고, 학회 홍보 활성화에 힘쓰게

할 것이다. 신입회원을 확보하고 대학원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심문숙 회장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등 학회의 내실을 기하고 회원들의 실무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보건소 중심의 자살 예방사업' 주제로 개최됐다. '자살 예방정책의 현황 및 방향' '자살 예방사업 운영 및 성과'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혜진 기자 hjjoo@

게시판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창립총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가 12월 17일 오후 4시 고려대 하나스퀘어 대강당 B112호에서 열

린다.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의료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연구와 실천을 고민하는 보건복지분야 인력들이 모여 학회를 발족한다. 창립총회에 이어 학술대회가 열린다. 12월 15일까지 사전 등록, 학회가입 및 사전등록 문의 전화 (010-2669-1848) 또는 이메일(koreanaphc@gmail.com).

독자주소 변경 ☎ 02)2260-2571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 원 간 호 사 회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69-6348	보 건 간 호 사 회	(02) 525-731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보 건 진 료 소 정 회	(02) 2296-7677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보 건 교 사 회	(02) 527-3390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마 취 간 호 사 회	010-3103-0748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보 험 심 사 간 호 사 회	(02) 2263-1959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산 업 간 호 사 회	(02) 716-9030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80	가 정 간 호 사 회	(02) 2267-5688
강원도 (033) 283-6417		노 인 간 호 사 회	(031) 750-598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편집윤리준칙을 준수합니다.

김수지 선생님을 추모하며

한 명 회 | 재미간호사·재외한인간호사회 봉사부장

어디서부터 가지고 오셨습니까
돌봄의 씨름.

어디서부터 품고 오셨습니까
생명사랑의 열정을.

가난한 조국의 흙속에서
돌봄의 씨앗을 찾아내어
온 땅에 심으시고,
돌봄의 어미가 되어
삶을 엮어가신 선생님은
간호계의 별로서
우리들의 자랑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의 깊은 뜻인
배움을 통한 생명사랑이
홀려홀려 거칠은 땅
아프리카 말라위까지 적시며
열매 맺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소리 없는 하얀미소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있지만
그 미소는 별이 되어
영원히 반짝일 것입니다.

심으신 씨는 돌봄나무가 되어
아프고 지친 이들의
그늘이 될 것입니다.

김수지 선생님!
이제 그 귀한 모습 다시 뵈실 수 없지만
삶에서 보여주신
그 돌봄을 통한 생명사랑정신을
기리며 나누렵니다.

그 귀한 정신이 홀려홀려
메마른 땅을 적셔
생명의 땅으로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김수지 선생님!
이 땅에서 돌봄의 어미로
거칠은 땅 고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십시오...

* 한국 간호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김수지 간호사업자문임원이 지난 11월 25일 소천했습니다. (관련기사 간호사신문 12월 1일자 게재)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재외한인간호사회에서 보내와 실었습니다.